

연중 제20주일

기도서	414 면 (C해)
제1독서 : 예레	38, 4-6, 8-10
제2독서 : 히브	12, 1-4
복음 : 루가	12, 49-53

# 숲정이

발행처 :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장 : 홍보국  
인쇄 :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불꽃의 신자

김 순 태 신부



한번은 젊은 새매이 찾아왔다. 갓 시집은 젊은 부인이었는데, 어릴때부터 성당엘 나가고 싶었다면서, 예비자가 되어 교리를 배우고 싶어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몰래 나와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새매이 가장 편리한 시간을 택하여 교리를 가르치기로 하였다. 그후 한달가량 열심히도 나오던 그 새매이의 발걸이 갑자기 뚝 그쳐버렸다. 시어머니에게 발각되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후 그 새매이는 비록 성당엔 못가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고, 시어머니를 그전보다 더욱 사랑으로 받들어 섬겼다. 그러나 그 새매이의 시어머니로부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몇달 후 성당엘 가면 잡귀가 들린다면 그 시어머니와 새매이가 함께 찾아왔다. 그 시어머니는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며느리를 내가 너무 구박했어요"라고 목메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눈망울에는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지금은 모두 신자가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 그 길은 무엇인가?  
반드시 평화로운 길은 아니다. 그 길은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며 아주 좁은 문이다(마태 7, 13) 영성의 어느 젊은이 처럼 재산을 걱정해서도 안되고(마태 10, 17-27), 장례를 걱정해서도 안되며(마태 10, 21-22), 집안 식구들과 작별인사도(루가 9, 61),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도 안된다(마태 10, 37) 이 모두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사람이 다(루가 9, 62).

이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꼴찌가 되어야 하고, 다스리기 보다 섬겨야 하며, 하나의 밀알처럼 썩어야 한다.

주님은 하나의 "불씨"였다. 이 불씨는 이미 타올랐고, 타오르는 이 불꽃을 어느 누구도 꺼버릴 수는 없다. 우리들도 하나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 이 불씨는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든 시기와 질투, 교만과 허위를 불태워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들의 위선과 미지근한 신앙을 살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불을 이웃에 피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거짓과 부패, 그리고 모든 불의와 부정을 태워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불꽃"이다. 이 "불꽃"은 항상 꺼지지 않는 "불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불꽃의 신자"가 되어야 하리라!

(성심학교 종교감)



## 필리핀 교회에 박수를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일단의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마르코스 정권은 엄청난 일을 획책했었다. 정부 전복 혐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이 바로 그것이다. 거기다가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러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필리핀의 대법원이다. 그래도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징표는, 필리핀의 언론인·노동자·예술인·학생·법률가·111명의 주교단이 이끄는 가톨릭 교회의 저항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사명이다. 잘못된 정치적인 상황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마르코스 정권은 무언가 조그마한 대비책을 남겨둔 것 같다. 어쩌면 독재국가들의 일률적인 모습의 하나이다. 19개월만에 계엄이 해제된 폴란드의 모습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었을 뿐」, 또는 「군복만 벗은 계엄해제」라는 제목으로 해설기사나 사설을 쓰고 있다. 이유인즉, 계엄은 해제했다고 하지만 위기관리법을 만들어 전과 다름없이 국민들의 숨통을 죄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 바웬사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정이 계속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고 계엄해제를 빈정대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에 두지 않은채 정권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무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나름대로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발언할 때,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교회는 이 세상을 하느님의 빛으로 밝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교회가 해결사는 아니지만, 흥대의 구실은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숲정이 산책

고성능탄 준비완료

□ 인권회복을 위한 전국 기도회 강론

# 어둠에 신앙의 빛을

김 수 태 신부

오늘 우리는 어려워져만가는 한 시대의 기로에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 역사 안에는 항상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가로막는 반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진리를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 시련과 피를 뿌려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련과 피를 부르는 진리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인도에서 있었던 열차사고에서 한 관계 당국자는 열차사고 소식을 전화로 받으면서 사람의 희생보다도 소가 몇마리나 다치었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어떤 근로자가 자신의 처지를 부자집 강아지만도 못하다고 한탄해 하는 것과 서로 상통하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동학(東學)의 창시자 최 수운(崔水雲)선생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였고, 2대 교주인 최 해원선생은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 듯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고귀함은 이미 하느님께서 자기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데에서 기원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권회복을 하나의 지상과제로 삼으시고 역눌려서 소외되고, 인간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밀바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제도나 법률, 질서가 그 존엄한 인간성을 무시할 때는 가차없이 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화려한 옷자락 뒤에 음모와 잔교가 도사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러한 체제적 반발과 정치적 선동이라는 죄명으로 처형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몸인 교회는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참으로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는 별세 멀어져 가고 있는 최 기석 신부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고통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재판 계류중인 소위 “오송회 사건”이 그렇습니다. 더우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진게 없어 가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배운게 없어도 하느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보존해야 했기에,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가족들을 보살펴야 했기에, 어떤 사장님 1잔 술값도 안되는 직장이지만 고마운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톨릭 노동청년회”에 가입한 불순세력이

라는 명목으로 이곳저곳을 전전공공하다가 마침내 설 자리조차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안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회의에서는 “인간이 가난한 것은 그 자질에 있어서 가난이 아니라, 불의가 얽혀 들어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빼앗긴 사람들이다”(아시아 주교회의의 10장)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른스” 추기경님은 오늘의 현실에 직면한 우리의 사명을 “교회를 방어하는 것보다,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을”이라는 주제하에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역사를 돌이키면서 이 어두어져만 가는 현실 앞에 무엇을 어떻게 비추어야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 수환 추기경님은 지난 특별기도회 강론에서 “우리는 오늘의 시련과 죽음 앞에 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둠과 싸워 이긴자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고, 뚫고 나가면서 그 어둠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기어이 그 불의와 죄악의 어둠을 밝혀야만 참된 진리와 정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것입니다”(79. 8. 6. 목성동)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어둠에 묻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복음 말씀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하시인은 지난 75년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들에게 보내는 옥중편지에서 “낙원이 참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이라면, 그만큼 우리의 실천이 상처와 피와 눈물과 땀으로 가득차 있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길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냘픈 여자였지만 프랑스 자본주의의 사회 모순과 수탈당하는 노동자의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다 34살의 짧은 여생을 마친 “시몬느 베이유”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몬느 베이유”는 항상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 이 몸과 영혼을 갈갈이 찢어 당신을 위해 쓰게 하시고 저에게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83. 7. 25. 중앙성당)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절기 특설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수도 KS마크 획득  
**한 일 씩 크**  
전북 총대리점  
•주방설계 •싱크대수리  
•가스렌지 •주방용기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④0841 야간 ④9874  
박 안 당 (윤규)

**[SS] FASHION 전주 특약 점**

버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허랑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④4451  
주인 유 울리안나  
챌 린 저 주 니 어 북

이 땅에 빛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 200주년 기념주일 호소문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께서 정성어린 기도와 헌신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심으로써 계획된 여러 일들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200주년 기념사업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복자성월의 첫 주일을 200주년 기념주일로 정하고 이날에는 특히 기념정신을 드높이고 모든 교우들이 이 일에 다같이 참여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기념주일이 금년에는 9월 4일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신도 스스로 찾은 진리를 생활 안에서 실천하고, 많은 어려움과 모진 박해를 능히 극복하여 2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이어서 오늘의 빛나는 터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신앙의 선열들을 본받아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깨달고 그 사명 안에서 생활할 때, 이 땅에 있는 한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믿음과 희망으로 하느님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순교 선조들께서 200년전 이 땅에 복음의 진리를 심은 것을 기념하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은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몇가지의 벽찬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103위 순교 복자들의 시성은 거의 확실히되고 있습니다.

세계 가톨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한 나라에서 103위가 더구나 많은 평신도들이 동시에 성인품에 오르는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성하의 방한도 내년 5월경으로 내정되어 있어, 우리 생애에 이 땅에서 교황 성하를 뵈게 될 기쁨으로 200주년 기념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앙대회, 전국 사목회의, 교회사 자료정리, 성서 번역 및 통일성가집 편찬, 맹인 무료 개안 시술, 북한 선교사업** 등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이라고 봅니다. 이 크나큰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 모두는 더욱 더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100년 뒤에도 한국 천주교회 3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마련되겠지만 그 일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 누구도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이 2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은총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거룩하고 보람된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큰 은혜요 우리 모두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일을 치르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도 200주년 사업을 위해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성공리에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될 200주년 기념주일 특별헌금은 200주년 기념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의 기도와 정성된 헌금이 있으시길 재삼 부탁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을 풍요롭게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1983년 9월 4일 200주년 기념주일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위원장 윤 공 희 대주교

## □ 전주교구 200주년 기념

### 교구 역사와 전시회를 위한 사료 수집

전주교구 홍보국에서는 보다 뜻깊은 200주년을 위해서 교구 역사와 기념 전시회에 자료가 될 각종 사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순교 선열들의 유물과 이 지방 교회사에 산 증거가 될 사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합니다. 수집된 모든 사료는 행사가 끝나는데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 사 료 수 집 내 용

-사진(1960년대 이전의 것)

-신심서적, 교회 간행물

-성 물(유물)

-기타 기념될만한 것

연락처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교구 전주교구청 홍보국

전화 5-0041~3

### □ 200주년 기념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기념품 판매 안내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위원회에서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념품을 제작 8월 15일 이후에 본당에 배부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기념품은 전주지방의 특산물인 태극선에 전면에는 전주 교구장의 문장을 모습 그대로 만들었으며, 후면에는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세워지는 피정의 집 조감도가 새겨져 있다. 최고급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한 기념품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교구장이신 주교님께서 사목의 좌표로 삼고 있는 "충성과 온유"(집회서 45,4)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키워 나가는데 새기며 살아 갈 수 있으리라 본다.

기념품 전면에 새겨진 주교님의 문장의 뜻을 소개하면 태극선 형태는 위대한 순교정신과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전주교구를 상징하며, 십자가는 평화의 주이시며 영원한 진리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뜻하고, 중앙에 비틀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미한다. 우측의 별은 구세주의 모친이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고, 좌측의 팔마가지는 순교자의 승리, 특히 그리스도와 수 많은 순교선열들의 성혈 위에 피어난 교회의 승리를 나타낸다. 3색은 믿음(우측 청색)과 희망(팔마가지 녹색)과 사랑(좌측 적색)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뜻한다.

이상과 같은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 기념품을 7만 전교구민은 가정에 하나 정도 구입하여 비치한다면 바로나 자신이 200주년 기념사업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다.



### □ 200주년 기념

### 전주교구 학생 교리경시 대회

—날짜 앞당겨 20일(토) 오후에 실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 선조 순교자들의 빛나는 일을 본받기 위한 학생 교리경시 대회가 원래 21일(일)로 예정되었으나 하루 앞당겨져 20일(토) 오후에 39개 본당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시험문제의 보안을 위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은 오후 3시, 중·고등 학생들은 오후 4시에 실시되는 이번 교리경시 대회는 본당별 참여율도 시험 성적과 함께 본당별 평가에 크게 작용된다.

이번 경시대회는 교구에서 파견되는 감독관들이 직접 시험문제를 가지고 각 본당에 파견된다.

출제경향은, 국민학교부는 이미 나누어 준 교재에서만 출제되되 20문제 모두가 단답형(短答型)이다. 중등부도 교재에서만 출제되며, 33문항 가운데 15%정도가 단답형이고 나머지는 객관식이다. 고등부는 이 원순 교수가 쓴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며, 문항 비율은 중등부와 비슷하다.

학생들 자신의 천주교 신자로서의 소양 함양은 물론, 본당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정정당당한 실력 거름이 있기를 기대한다.

### □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복자축일까지 계속

그동안 중단되었던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가 다시 시작된다. 한국 순교 복자 축일까지 계속될 기도회는 1지구, 3지구, 7지구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지난 7월 성황리에 마친 6지구의 헌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무주-80,390원, 장수-45,100원, 한들-60,000원, 장계-52,070원, 진안-56,710원

## 十 주 님 의 평 화

주님의 안배하심으로 저희 수도원이 전주교구의 이리에 자리잡고, 창설이라는 어려운 소명에 임하게 된지도 오는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이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형 자매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협력으로 수녀원의 신축공사가 서서히 진척되어 가고 있음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드리는데 저희 수도 가족들입니다. 현재 수녀원의 성당 신축단계에 있어서 성당에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를(제대, 십자가, 독서대, 14처, 성상, 신부님 의자, 장패틀과 긴의자 등), 하느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기증해 주실 독지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장패틀과 긴의자 셋트에 10만원)

위와 같은 것을 기증해 주시는 교우들의 이름을 각 기념품에 새기고서 성당을 사용하는 수녀님들이 매일 은인들을 위한 단체와 개인의 기도중에 깊은 감사의 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하심 넘치옵길 빌면서.

※ 보내시는 방법: 구좌번호(온라인)

조흥은행(702-1-034716 김 재덕 주교님) 제일은행(700-10-012970 김 용태 신부님)

중소기업은행(182-02-0074-825 장 민숙 수녀님)

성 글라라 봉쇄수도원의 주소: 510 이리시 삼성동 해바라기 농장內 전화: 이리 ☎ 5569

□ 교구사 ⑥



## 신 유 박 해(辛酉迫害) (2)

주 문모 신부의 활동은 대단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가 입국하기 전에는 4천명이던 신자가 1800년에는 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금하면 금할 수록 널리 퍼져나가며 씨앗이 떨어져 또 다른 씨앗을 내듯” 한결같이 번져 나갔다.

전주의 유향점은 그의 인품과 만금(萬金)의 재산으로 교세를 번창시켰다. 1800년 6월 28일 현명하고 온건한 정조의 승하는 남인(南人)과 천주교인에게는 더 없는 불행이었다.

11세의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그는 영조의 제비이며 순조의 증조모로서 그의 본가는 벽파의 수령으로 정조때 큰 타격을 받았었다. 그래서 집권하게 되자 벽파와 합세하여 시파와 천주교인을 일망타진하므로 정치적인 보복을 계획하였다. 1801년 1월 10일 천주교인 박해령이 공포되고 1월과 2월에는 상소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박해의 이유는 당적에 대한 복수로만 설명될 수 없었다. 거기에는 합당한 구실과 명분이 있어야 했고 그 내용은 유교의 교리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결정되었다. 유교의 교리는 아با와 임금이 인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효(孝)와 충(忠)이 삼강오륜의 윤리로 제시되고 있었다. 천주교는 조상제사 거부뿐 아니라 교리 어디에서이든 반유교적인 교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교는 부모가 낳아 준 육신을 미워하라고 명령하니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을 원수라고 고발하니 왕을 원수로 취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며 동정이 결혼보다 더 완전하다고 가르치니 인류를 멸하려는 것이다”라고 힐난하며 이것을 복음의 요약으로 취급하였다.

정조의 입장은 천주교의 신앙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표면에 나타나는 사건만 회유하거나 처벌하였다. 따라서 천주교는 지하운동이나 가능하였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왕대비는 “인륜을 파괴하고 교화(教化)에 배반하여 오랑캐와 금수로 돌아갔다”고 단안을 내리고 “엄금한 후에도 고치지 않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며 진멸시켜 중자를 남기지 말라”고 엄명하였다. 그리고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 따라 수색망을 폈다. 박해령이 공포되자 배교여부를 가리지 않고 남인 시파 출신으로 천주교에 받을 들여놓은 적이 있는 자는 체포되어 그중 지도급의 주요인물들이 2월말까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주신부는 자기가 자수하면 회생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수하

였다. 그러나 오히려 박해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었고 드디어 3월에는 전주로 번졌다. 먼저 유 향점과 관점 형제와 가족일부가 체포되었다. 유 관점은 고문에 못이겨 윤 지현, 이 우집 등 많은 교우들의 명단을 제시하여 포졸들의 수고를 덜어 주었다. 그리하여 전주, 김제, 금구, 금산, 고산, 흥덕, 영광, 무안, 함평 등지에서 200여명이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3월 28일 부터 전주 영문에서는 약 20일간 본격적인 취조가 진행되었는데 거기서 국가존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모의사건이 탄로되었다. 유관점의 친사돈이며 그가 입교시킨 이 우집은 배교의 뜻을 비친 다음 사건의 전모를 폭로하였다.

천주교의 선교목적으로 서양에서 큰배(大船)를 불러들여 나왔을때 만일 우리 정부가 굴복하지 않으면 한바탕 요절을 낼것이라는 내용과 밀사로서 황 심과 김 유산이 북경을 왕래하였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밀고하였다. 전리감사 김 달순(金達淳)은 4월 20일 사건의 중대성으로 보아 의금부에서 판결하도록 청하였고 25일에는 감사의 청대로 압송이 허락되었다. 5월 16일 포청군관 박 동순, 박 시성에 의해 유 관점, 이 우집, 김 유산을 위시해서 대박청래(大舶請來) 사건과는 관계없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한 정흠, 최 여겸, 김 천애 등 중범자들이 서술로 압송되었다. 한편 전주에 감금된 200여명중 배교한 150여명은 석방되거나 귀양을 갔다. 그후 한 정흠, 최 여겸, 김 천애는 전주로 압송되어 자기 연고지에서 7월 17일 참수되었다. 한편 유 향점의 4명에 대한 국문(鞫問)은 9월 11일 간단한 요식행위로 끝났다. 그리고 유 향점은 대역부도죄, 유 관점과 윤 지현은 역적모의죄 김 유산과 이 우집은 불고지(不告罪) 죄로 전주감영에 보내져 9월 17일 능지처참되었다.

이때 전라도에서 처형된 수는 20여명, 유배된 수는 37명에 이른다. 그때 전라도 순교자중 적물된 집안은 유향점과 윤 지현이었다. 향점의 아들 중철(중선)과 문석(문철)은 전주옥에서 10월 9일 교수되었다. 9월 15일 체포된 향점의 처 신희 관점의 처 이 윤희 조카 중성 며느리 순이는 12월 23일 순정에서 참수되었다. 또한 9세의 딸 섬이는 거제도, 6세의 아들 일문은 흑산도, 3세의 일문은 신지도로 귀양갔다. 한편 윤 지현의 처 중향은 흑산도, 15세의 아들 중권은 제주도, 13세의 중근은 거제도 4세의 중득은 해남, 딸 오일은 경흥, 성애는 벽동으로 귀양갔다. 그들은 멸족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못자리가 된 것이다.

### 전주교구 꾸르실료 올뜨레야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가 톨 릭 센 타 3층 강당

※ 꾸르실료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 그때의 감격을 나누시다!

□ 순교인물전 ⑥

# 이 경언(景彦, 바오로)

이 경언(중회 바오로)은 1801년 서울 서소문 밖에서 치명한 경도(景陶, 가롤로)와 전주에서 치명한 이 누갈다(順伊)의 막내동생이다. 형과 누나가 치명한 1801년은 그의 나이 10여살이었다. 그는 체질은 허약했으나 성격은 유순하고 강인했다. 집안에 두 사람이 순교하자 형세하던 가정은 박살이 났고 가난을 배우면서 살아 갔다. 그는 3살쯤 아버지를 여의었고 편모솔하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는 25세쯤 되어 중인(中人)계급의 집에 장가들었으나 악처였다. 가장 가까운 십자가는 악처와 몸에 가시로 찌르는 듯한 자기의 신병에 시달렸다. 그가 성경을 탐독하며 복음정신을 실천하는 생활은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여 평화를 보존하는 유일한 힘이였다. 그의 삶은 성찰 통회가 전부였다. 곁손에 극진하며 열려진 마음은 영혼에 이익이 되는 충고를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1820년대에 한국교회를 함께 이끌어온 현 서문을 자자 영혼의 형으로 보았다. 자기의 결점을 유익하게 충고해 주는 그를 보배처럼 받아 들였다. 그의 타고난 손재주는 천주의 도구 역할을 제대로 하였다. 성서를 베끼고 상본을 모사(模寫)하여 교우들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신부 영입운동의 밑사를 파견하는 경비를 마련하였다. 신부가 없는 한국교회는 고아와 같았다. 북경주교는 신부를 파견하기까지 신자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신앙을 지도할 회장 양성의 시급함을 느꼈고 이 명령이 한국교회에 전달되자 큰 뜻을 담당했다. 주님은 그의 용덕을 눈히고자 이런 일도 마련하셨다.

어느날 돈 많은 과부가 첩이 되려고 많은 재물과 미모로 뜨겁게 유혹하여 왔다. 그것은 악처에 시달리고 가난에 찌든 그에게 가장 적중한 유혹이었다. 처음은 뿌리치기에 경황이 없었으나 정신을 가다듬자 유혹을 고쳐 성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정신이 들었다. 천주와 성모의 도우심이 있으리라는 굳은 믿음으로 다디단 과부를 만나 천주교의 진리와 구원의 길을 불같은 입으로 설명하였고 천주는 승리하셨다.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이 배물기 전 거두어 가져야 했던가. 이몸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자 대세를 받고 부활을 약속이나 받듯 3일후에 선종했다. 경언의 배운 순결과 신선한 무사무욕은 천주의 걸작이었다.

1827년 2월, 전라도 곡성에서 박해의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라도는 박해의 도가니가 되었고 240여명의 신자가 전주옥에 갇혀 전주는 공포에 휩싸였다. 신자들에게 성서와 성물의 출처를 추궁하던 중 경도가 고발되었고 배교자 김성집의 안내로 4월 21일 서울과 전주포졸 10여명이 들이닥쳐 포도청으로 연행되었다. 배교의

제촉 속에 신앙은 더 굳어졌고 3일 후에는 전주로 이송되어 하루 백리길을 걸어서 28일에야 전주 감영에 도착했다. 이튿날부터 사실심문이 진행되었다. 감영에 대기하고 있는 동안 그는 순교한 누님, 누갈다의 체취를 느꼈다. 자기가 서있는 이곳이 바로 26년전 누님이 천상본향으로 떠나기 위해 겪던 수련장이었다. 이제 자기의 할 일은 형과 누님처럼 신앙을 용감하게 고백하여 영광의 발자취를 밟는 일이라고 누님이 손짓하는 듯 하였다. 전라감사는 교리내용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여 개심을 제촉했으나 그것은 그의 교리강의를 듣는 꼴이 되었다. 전주, 고산, 곡성, 동북, 정읍 관장들이 연석한 취조장에서 다시 경언에게 인간적인 충고로 배교를 권하였다. “너는 양반집 자식이니 저 무식한 백성과는 다르지 않으나, 게다가 너 같이 잘 생긴 사람이 어찌 그 고약한 교를 믿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단 말이나” 그의 대답은 차원이 달랐다. “의리에 있어서는 상반의 구별도, 반상(班常)도, 미모의 구별도 없고 오직 영혼만이 구별되는 것이다” 그의 대답은 변할 수 없었다. 천주는 만민의 대왕이시요 아버지시라, 제 어머니도 그분에게 조성을 받았으니 피조물을 위해 조물주를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초과정에서 세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께서 앞서 가며 교훈하고 있었다. 편태를 받으며 자판을 쓰시고 십자가에 정사하시는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겹쳐보였다. 그러나 예수님과 자기의 처지는 달랐다. 위로와 동정이 없는 예수님과 달리 자기는 옥중에 함께 있는 교우들의 도움과 친절한 위로가 있었다. 연약한 마음에서 천주께 감사할 겨를이 없던 자신이 가슴즈러웠다. 천상의 천신과 성인들께 감사의 전구를 기도했다. “천주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생의 공포는 평화롭게 사라졌다. 예수 마리아를 호호하듯 외었다. 천주의 은혜와 성모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와 두남매를 남기고 1827년 5월 4일 서른 여섯의 나이로 고문의 상처가 독이 되어 옥사하니 자기 본향으로 훨훨 날아갔다.

그는 어머니 누이 형수 아내 그리고 동료 회장들에게 단장을 꾸는 듯한 편지를 남겼다. 그것은 인내와 불같은 신심과 천주 성의(聖意)에 순명하는 생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서요 영적독서가 되었다.

해외여행 업무개시  
성지순례(국내외)안내

##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 \*철도청 열차표 발매
-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여성의 멋은 미용에서!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데레사(금순)  
☎ ④ 9206 · ③ 5289

□ 해외여행 및 성지순례 안내  
-형제들을 위해 성실한 봉사자로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내 쇼 날 항공

전북지구 주재원 이 은 자(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01(가톨릭센터 후문)  
전화 ④ 2 5 0 2 · ③ 4 4 7 1



□ 교리해설

###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는 당신 아드님이시고 구세주이며 성부와 인류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인 성자, 그리스도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만큼 성모의 축일은 그리스도의 구원신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만 성모축일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성모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나 성자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었다. 구세주를 잉태하고 낳으신 동정 마리아는 원칙에 물들지 않았고 현세에서 당신 아드님과 고통을 나누고 그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면서 성자의 구속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봉헌하였다.

교회는 성모께서 지상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하늘로 올라갔음을 옛부터 믿어왔다. 성모의 교황이라 불리던 삐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축일에 “완죄가 없으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세생활을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을 교리로 밝히고 이것을 선언하고 반포하는 바이다”(삐오 12세의 헌장·무니피첸치시무스)라고 7백명의 주교와 50만의 순례자들이 모인 베드로 대성전 광장에서 성모승천의 교리를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시대 이후 성모에 대한 중심적인 개념은 마리아의 모성(母性)이었고 3세기초 성모를 「하느님을 낳으신이」라 언급하였으나 5세기 초에 에페소 공의회에서 성모를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러 공경과 찬미를 드렸음을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신자들은 순교자들의 천상탄일을 본따 성모의 승천(천상탄일)을 기념하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믿었던 것이다.

5세기부터 마리아의 기념 축일은 흔히 8월 15일에 지내게 되었고 이 축일은 성모의 수면(주무심~죽음을 뜻 함) 축일로 발전하였다. 6세기에 기록된 동방 교부들의 문헌에서 성모승천에 관한 강론을 찾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성모와 성자간의 영원하고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성모승천의 기록은 성서에는 없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 오는 믿을 만한 전승(傳承)과 구원사에 있어서의 성모의 역할, 성모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및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성모가 차지하는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성모승천의 교리가 신학적 결론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인 교회헌장 제8장에서는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성-성부와 인간간-을 결코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크게 나타낸다고 밝히고 아울러 교회가 인준한 성모 신심의 여러가지 형태는 성모께 대한 공경을 통해 성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자에게 사랑과 영광을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후 당신 아드님의 부활과 천상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신 성모를 우러러 뵈옵고 성모님의 능하신 전구를 구해야 하겠다.

### 요심이 (523) 김병오



밝고 시원하게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렌타**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종순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 등)  
친절 상담 봉사  
염가 판매 조제

**군산 태 광 약 국**

구시장 오거리 ①1800  
이 루도비코(원석)  
최 테레사(순정)

- 혼수(회갑) 옷감
- 복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튼지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모(덕배)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미영칼라현상소**

☎ ③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험일자 9월 18일  
2차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재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고사동 1가 429  
전북 직심자사앞 5층건물  
김 베드로·김 안나



☆ 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1.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김계-13~14일, 신태인-15~16일, 부안-19~20일, 수류-27일~28일
  2. 제15차 여성 부르실로: 18~21일 (3박 4일),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2만5천원
  3. 200주년 기념 학생 교리경시대회: 20일(토) 오후 3시-국민학생, 오후 4시-중고등학생
  4. 일대 앞둔 젊은이 1일교육: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센터, 84년 8월 이전 이정자, 회비-1천원
  5. 인권 수호를 위한 기도회: 22일(월) 오후 8시, 장소-군산 문물동 성당
  6. 성령쇄신 봉사자 모임: 25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미사 있음, 주제-은사문제
  7. 제4차 M.E 주말 교육: 26~28일, 장소-광주 명상의 집
- 축! 영명: 성 베르나르도(20일)-소 순형 신부님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김인협

1. 분당신부님 영명축일: 24일, 많은 기도 바람
  2. 첫영성체: 8월 15일
  3. 중·고 200주년 교리경시대회: 16일~21일, 16일 오전 9시, 장소-강당
  4. 주일학교 성지순례: 19일 오전 8시(신착순 100명) 회비-2천원, 대상-국교 3·4·5·6학년  
순정이→초록바위→남문밖→고산 천호공소→여산성당 일대
  5. 초·중·고 교리경시대회: 21일
  6. 성모승천 대축일: 15일, 주일미사와 같음
  7. 성전신축헌금 신임해 주신분께 감사  
안철문(20만원), 익명(2만원)  
신입누계: 202,502,600원 납입누계: 71,004,500원  
복구신공: 415,453단 봉헌
- 지난주 봉헌금: 785,980원 교무금: 637,3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⑥7032 보좌 신부 이춘성  
사도 회장 나홍재

1. 축! 성모 승천 대축일: 15일, 미사안대  
①분당미사-오전 6시, 9시(중·고생 및 어린이), 오전 10시30분  
②5개공소 합동미사-오후 5시(왕정리 천변에서)  
③아파트 미사-오후 7시
  2. 구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축! 첫영성체식: 내일 공식미사 중에  
부모님과 대부모님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분당 울드레아: 오늘 저녁 8시, 사제관
  5. 구역모임 보고서 제출: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모임  
보고서(8월분)를 제출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361,930원 아파트: 66,270원  
교무금: 197,000원 아파트: 40,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삼열

1.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15일 오전 6시, 9시, 10시30분, (아동 첫영성체 합주미사), 오후 8시,  
※ 3시 아동미사 없음
  2. 중·고 교리경시대회 준비교육 (200주년): 16일~20일, 오후 4시~6시
  3. 200주년기념 교리경시대회: 20일, 국교생-오후 3시  
중고생-오후 4시~5시
  4. 구리아 회합: 오늘 회합을 다음주일로 연기
  5. 반석회·청년연합회·성모회: 다음주일
  6. 습사: 복사단 및 미사해설자단복을 마련해주신 분들  
7. 수녀원에 세탁기 기증: 정두희부부께 감사
- 지난주 봉헌금: 433,755원 교무금: 578,000원

(복자)

전화 ⑥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설호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승천 대축일: 15일(월) 미사 주일과 같음
3. 견진받으실 분: 사무실에 신청(세례증명서 첨부)
4. 소지품 주의: 자전거 열쇠 채우고 소지품 주의 바람
5. 수녀원 신축헌금: 20만원-강경숙, 10만원-정동민  
· 이상기·김종옥, 15만원-박광수, 5만원-박기술  
· 홍성순·서봉희, 3만원-백복순·윤양순, 2만원-정준희·김학필·전성권, 1만원-윤관용·최복주,  
5천원-오부용·홍순금, 2천원-박성녀, 1천원-이순이, 누계-4,003,000원

7.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상인 ③정운주  
15일 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이갑진 ②허순덕  
차주전례: 해설-이명래, 독서-①김성원 ②천전
- 지난주 봉헌금: 453,720원

(서화동)

전화 ⑥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새벽 5시30분, 10시 공식미사, 저녁 8시
  2. 첫영성체 및 어린이 영세: 15일 10시
  3. 반장 릴레이: 공식미사 후
  4. 여성 15차 부르실로: 18일부터  
수녀님과 리드비나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5.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사제양성 후원회에 관심을 갖읍시다
  7. 가톨릭시보 구독자 접수 바람: 사무실
  8. 구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회의실)
  9. 중·고등학생 하계 특별교리: 14일~17일까지 오후  
5시30분~7시까지, 신학생 지도
  10.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장기호 ②신영창  
신자들에게 기도-김한기·김해자·김상곤
- 지난주 봉헌금: 263,050원 교무금: 92,200원

(숲정리)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길

1. 구리아 릴레이: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①10:00시 ②저녁 8:00시
  3. 첫영성체: 오늘 공식미사 중
  4. 교리경시대회 위한 기도: 16일(9시)부터 20일까지
  5. 금주전례: 해설-이귀래, 독서-강삼·김영철  
기도-이규철·남상용  
차주전례: 해설-이귀래, 독서-황현도·김남곤  
기도-김경주·허옥순
- 지난주 봉헌금: 163,485원 교무금: 332,900원

(전동)

신부 ⑥2608 주임 신부 김병업  
전화 사무 ⑥3222 보좌 신부 박민길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주일과 동일합니다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설마리아 구리아: 오후 2시
  3. 성화회·교미씨름: 다음주
  4. 글라라 형제회 야유회: 16일 오전 7시 출발  
행선지-산정 성심원·땀사골, 회비-5천원
  5. 철야기도회 안내: 매월 셋째토요일 밤11시~새벽5시
  6. 200주년 교리경시대회: 20일, 초·중·고생 오후 2시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최정식 ②최중만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신일균 ②이영태  
저녁미사: 해설-김운주, 독서-①이영철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549,400원 교무금: 548,40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전화 수녀 ⑥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10시, 저녁 8시  
만 있음(3시30분 미사 없음)
  2. 복사단 단합대회: 16일, 대상-복사단 전원, 교리교사 전원, 복사하는 어린이들의 어머니 전원
  3. 수녀원 공사마침: 초·고생 전원 성당 외부청소 부탁
  4. 대축일 고백성사 원형성 분: 9시부터 고백성사 시작
  5. 사도회 단합대회: 11일 있음
  6. 15일 10시미사: 독서-①사도회장 ②성모회장
- 지난주 봉헌금: 213,660원 교무금: 202,000원  
기타 봉헌금: 93,430원